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爲하여

—이른바 長母音의 境遇—

金 完 鎭*

I.

同一한 形態素의 異形態들 사이의 關係가 어느 한 異形態를 基準으로 하여 音韻論的으로 說明될 수 있을 때, 그러한 異形態들이 自動的 交替를 示顯한다고 말해 온다. 反面 그와 같은 音韻論的 說明이 不可能할 때 우리는 非自動的 交替라는 術語를 쓴다. 假令 ‘먹다’ (食)라는 動詞의 語幹形態素가 活用이나 派生을 通하여 ‘먹~멍~멕’ (‘먹고’, ‘먹는다’, ‘먹이다’ 등에 있어서와 같이) 등의 異形態들을 示할 때 ‘먹’을 基準으로 하여 나머지 두 形態를 音韻論的으로 說明한다는 것은 매우 容易한 일이다. 鼻音 ‘ㄴ’ 앞에서의 ‘ㄱ→ㅇ’의 同化나 ‘이’의 逆行同化에 依한 ‘어→에’와 같은 現象은 國語에서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音韻規則에 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主格 形態素의 두 異形態 ‘이’와 ‘가’는 그 實現이 音韻論的으로 條件지워져 있음이 ‘먹’의 境遇와 같으면서도 이 두 異形態 사이의 交替를 音韻論的으로 說明할 方途를 마련하기 어렵다.

現在의 우리 正書法이 바로 이 自動的 交替와 非自動的 交替를 識別하여 自動的 交替를 示顯하는 形態素들에 對하여는 되도록 固定的 表記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 助教授(國語學)

를 行함으로써, ‘same sound, same representation’ 아닌 ‘same utterance, same representation’의 原理에 많은 執着을 보이고 있음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그렇지만 正書法에서 暗默的으로 理解된 自動的 交替의 概念은 매우 狹小한 것임을 우리는 注意하여야 한다. 現實的 表記 規範으로서의 正書法으로서의 缺陷이 되는 것이 아니겠으나, 우리의 觀點에서 보면 가장 좁은 意味의 自動的 交替만이 認定되고 있다는 事實을 看過할 수 없다.

筆者가 이 小稿에서 企圖하는 것은 自動的 交替의 幅의 擴張이다. ‘있~겨(시)’ 등에 까지 미칠 수는 없지만, 되도록 많은 形態素들에 對한 單一表記를 可能케 하여 形態論的 記述의 負擔을 輕減시키기를 期한다. 이러한 目的을 遂行하기 爲해서는 다음과 같은 作業을 必要로 한다.

- (1) 形態素의 單一表記를 可能케 할 形態音素들의 定立.
- (2) 새로운 音韻規則의 發見, 또는 이미 認知된 規則들의 精密化.

具體的으로 實現된 形態들 中の 어느 하나를 選擇하여 그로부터 다른 形態들의 音相을 誘導하는 平面的作業이 아니라, 그들 異形態들과는 次元을 달리하는 抽象的으로 表記된 形態素 構造로부터 下位의 異形態들을 音韻論的으로 導出하는⁽¹⁾ 이를테면 立體的 節次를 擇한다. 그 差異를 比喩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簡單한 例로 이른바 ‘ㄷ’ 받침 변칙이나 ‘ㄹ’ 받침 변칙의 이름으로 불리는 用言 語幹의 交替에서 (例, ‘듣고, 들어, ...’ 또는 ‘굽고, 구

(1) 지금의 思考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주고 있는 著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M. Halle (1959), *The Sound Pattern of Russian*, The Hague; Mouton.

S. A. Schane (1968), *French Phonology and Morphology*, Cambridge, Mass.; MIT Press.

N. Chomsky and M. Halle (195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워') 異形態들 사이의 差異가 오직 그 末音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라면, 形態素 表記의 次元에서 δ 또는 β 를 그 자리에 固定시켜 놓고 이것들이 (形態音素라 하든 音素라 하든) 各各 母音앞에서 r, w 로 子音 앞에서 t, p 로 實現된다고 함으로써 恣意히 非自動的 交替의 拘束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或은 β 의 境遇, 이러한 새 單位의 設定을 避하고 w 가 子音 앞에서 p 音化한다는 音韻規則을 導入하며, w 를 該當 形態素의 末音으로 記入할 수도 있는 것이다⁽²⁾.

筆者의 關心은 恒常 共時的 面과 通時的 面에 걸쳐 있기 때문에 때로는 中世를 넘나들고, 때로는 兩者間의 史的 關係에도 言及할 것이나, 全般的 整理나 無謬의 結果를 追求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 들 必要가 있다. 오히려 'same utterance, same representation'流의 態度論의 表出과 그 國語에의 適用에 있어 發見되는 特異한 事實과 問題點들의 摘記가 現在의 筆者가 바라는 最大限의 것이라고 함이 穩當할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現在의 方法論을 取할 때 容易하게 捕捉되고 그 整理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 問題, 例컨대 앞에서 暫間 言及했던 'ㅂ' 받침 변칙이나 'ㄷ' 받침 변칙類의 整理는 되도록 避하기로 한다. 勿論 外見上의 單純性이 恒常 問題의 單純性을 意味하지는 않겠지만.

II.

國語學에서 恒用되는 이른바 媒介母音이라는 術語는 그 字意대로 두 形態素의 結合에서 생기는 子音衝突을 避하기 爲한 手段으로 그 子音들 사이에 插入되는 母音을 뜻한다. 現代國語에서의 '으', 中世國語에서의 '으/으'가 그렇게 認識되어 왔다. 그러나 좀 仔細히 살펴보면 이러한

(2) 이 問題에 있어 筆者는 β 의 定立 쪽을 擇한다. w를 세우면 다른 데 가서 說明하기 困難한 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기 때문이다.

說明이 適切치 않음을 곧 알게 된다. 國語의 音韻規則으로서 母音間의 두 子音을 忌諱하게 하는 것은 存在치 않기 때문이다. 所謂 媒介母音이란 音韻論的 理由에서 插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 A. {가 며, 가 니, 기 마, 가 나, ...
 {먹으며, 먹으니, 먹으며, 먹으니, ...
- B. {가 고, 가 니, 가 지, 가 나, ...
 {먹 고, 먹 니, 먹 지, 먹 나, ...

A. 에 있어서는 子音語幹 밑에서 規則적으로 ‘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B. 에 있어서는 그런 ‘으’의 出現을 期待할 수가 없다. 이런 點으로 보아 ‘먹으며, 먹으니’ 등에 있어서의 ‘으’를 接尾辭의 頭音으로 處理하여 /-으니∞-니/, /-으며∞-며/라는 異形態間의 交替를 이 接尾辭形態素들에 對해서 認識했던 記述言語學時代의 態度는 基本的으로 올바른 것이었다⁽³⁾.

이들 所謂 two-shape morpheme 들을 單一 形態로 表記하려는 우리의 關心은 이제 오히려 ‘으’ 頭音을 가진 二音節 形態 쪽으로 쏠린다. ‘-으니, -으며’ 쪽을 當該 形態素들의 基本構造로 보고, 母音語幹 아래에서 一定한 音韻規則에 따라 ‘으’를 除去하고 ‘-니, -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一見, 簡單한 節次에 依해서 解決될 수 있는 일 같지만 實은 만만치 않은 事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곧 알게 된다. ‘으’를 消滅시키는 要因으로 母音外에 ‘ㄹ’이 發見되기 때문이다. (例: 불며, 부니, 부나, ……) 卽 問題의 ‘으’가 ‘으’로서 維持될 수 있는 것은 先行 語幹의 末音이 純粹子音 卽 $\begin{bmatrix} -\text{vocalic} \\ +\text{consonantal} \end{bmatrix}$ 일 때에 限한다. (語幹末音으로 半母音 j의 存在를 認定해도 ‘되며, 되니’에서의 같이 子音側으로 加勢하지는 않는다.) 萬若 이러한 狀況이 頭音 ‘으’를 가진 모든 接尾辭들에 普遍的으로 認知될 수 있다면

(3) 一例로 語文學研究會編 國語學概論 (1965) p. 135에서의 安秉禧 教授의 敘述을 參照.

으 → ø / -C_i + — C_i는 純粹子音

程度의 公式 設定을 할 수 있을텐데, 意外의 伏兵을 다시 主題格의 ‘은’과 對格의 ‘을’에서 遭遇한다. ‘나’ + ‘은’, ‘너’ + ‘은’이 ‘난’, ‘넌’ 등으로 實現되기는 하지만 ‘불’ (火) + ‘은’은 오직 ‘불은’으로 實現될 뿐이지 우리가 期待하는 ‘분’과 같은 形態는 나타나지 않는다. 冠形詞形의 ‘은’, ‘을’과의 比較로 明確한 浮刻을 시켜보자.

(例: 불-〈吹〉+冠形詞形 接尾辭)

‘불’ + ‘-은’ → ‘분’

‘불’ + ‘-을’ → ‘불’

對格이나 主題格 앞에 j가 올 때에도 問題의 ‘으’가 없어지니까 ‘르’만이 지금의 差異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現在의 狀態로 對格이나 主題格의 ‘으’의 消滅을 整理한다면 다음과 같은 程度의 圖式化가 可能한 것이다.

으 → ø / [-vocalic] + —

(j는 [-vocalic, -consonantal], 르은 [+vocalic, +consonantal] 이니까.)

그러나 이 第二의 公式를 樹立하게 되면, 이들 두 公式를 矛盾없이 配分시킬만한 制約條件의 發見에 苦惱하게 된다. 한쪽이 格接尾辭요 다른 한쪽이 活用語尾인데 基因하는 것도 아니다. 造格의 /-으로~-로/의 交替條件은 바로 第一의 公式 範疇에 屬하는 것이지 後者에 드는 것이 아니다. 이 點에서 轉成名詞와 動名詞의 對比는 매우 興味롭다.

얼음으로 : 얼므로

놀음으로 : 놀므로

名詞로서의 ‘얼음’ (氷)이나 ‘놀음’ (賭博)은 어떠한 環境에서도 더 줄어들 수 없다. 따라서 이런 方向에서의 唯一한 解決方案은 主題格이나 對格의 接尾辭에 各各 [-1]이라는 形態論的 資質을 附加하여 第一의 法則의 適用을 排除하고 第二의 法則의 適用을 可能케 하는 길이겠으나,

이러한 處理는 形態論的 記述의 輕減을 期하려는 우리의 基本目標에 背馳된다.

이제 남은 길은 이들 두 種類의 ‘으’ 自體를 根本的으로 區分해서 생각해 보는 일이다. 便宜上 番號를 붙여, 活用語尾類에서의 ‘으’를 ‘으’ (1)로 主題格, 對格에서의 ‘으’를 ‘으’ (2)로 해 두자.

‘으’ (2)는 先行 語幹의 末母音 뒤에서 單純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의 母音을 長音化시키는 境遇가 있음을 우리는 注目한다. 主題格의 境遇에는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나, 對格의 境遇 例컨대 ‘나+을’ ‘너+을’ 등은 ‘날’, ‘널’ 아닌 ‘날’, ‘널’로 實現된다. (˘ : 短音, ˉ : 長音) 反面, ‘으’ (1)은 先行하는 어떠한 母音에 對해서도 이와 같은 長音化를 이루지 못함이 觀察된다. 例 : 가+으니→가니, 오+으니→오니, ……等. 오히려 類似한 長音化가發見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例들에서다.

달+으며→다^ˉ으며→다^ˉ며

짓(집)+으며→지^ˉ으며→지^ˉ며

‘으’ (2)는 純粹한 母音으로서 先行母音과의 사이에 아무런 子音的 要素를 介入시키고있지 않기 때문에, ‘다^ˉ으며, 지^ˉ으며’에 該當되는 形態가 直接 音聲的으로 實現되는 일이 없을 뿐, 그 밖의 點에서는 많은 類似點을 가지고 있다. 萬若 우리의 ‘으’ (2)가 先行 母音과의 結合에서 規則的인 長音化를 隨伴한다면 收約으로 解釋하는데 躊躇할 것이 없겠으나 이 長音化의 同伴이 오히려 例外的이고, 特히 轉成名詞의 境遇에는 長音化의 例가 全혀 發見되지 않기 때문에 速斷키 어렵다. (例 : 자다→잠, 꾸다→꿈, 트다→틈 等) 하기는 ‘나+에게→내^ˉ게’와 같은 例에 있어서도 長音化가 發見되지 않으니까 體言 語幹과 格形態 사이의 收約에는 長音化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 두면 그만일 것 같으나, 여기서 다룰 수 없는 또다른 問題들이 있기에 좀더 자세한 論議는 다음 章에 넘

어가서 띄기로 한다.

규칙 $x = \text{규칙 } 1' \text{ or } 2?$

		으 (1)			으 (2)	
규칙 1.	가다	들다	닿다		불(火)	나(我)
규칙 2.	↓	↓	닿을	규칙 x	불을	날

2의 段階에서 보는 ‘닿’에서의 長音性은 形態素 ‘닿—’에 賦與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닿다, 닿고, 닿더니, 닿으니, 닿아……’ 등을 通하여 語尾의 母音과의 收約을 示顯하지 않는 限, 長音化되는 일이 없다.

暫定的으로 ‘으’ (1)과 ‘으’ (2)에 對해서 y와 i라는 記號를 賦與해 두자. i로 表記한 것은 固定的으로 i의 音聲 實現을 보이는 것, y로 表記한 것은 一定한 條件下에 제로로의 交替를 보이는 存在로 理解한다. i와 y의 關係는 子音쪽에서의 t:δ(普通 ‘ㄷ’과 ‘ㄷㄴ’의 交替를 보이는 ‘ㄷ’) 및 p:β(普通 ‘ㅍ’과 ‘ㅍw’의 交替를 보이는 ‘ㅍ’)에 類似한 것인데, i, y의 差異는 tense:lax의 差異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問題는 다음 章에서 다루겠다.)

語幹 形態素 內部에서도 이와 類似한 對立을 觀察할 수 있다. 이른바 ‘르’ 變則用言 첫째와 둘째의 興味있는 對立이 바로 그것이다.

- A. { 이르다 이르고 이르니 이르러서
- { 푸르다 푸르고 푸르니 푸르러서
- B. { 오르다 오르고 오르니 올라서
- { 그르다 그르고 그르니 글러서
- C. { 따르다 따르고 따르니 따라서
- { 치르다 치르고 치르니 치러서

學校文法에서는 ‘-다’와 結合된 때의 모습을 用言 語幹의 基本形으로 잡기 때문에 A. B. C 서 類型의 것을 다 ‘르’로 끝난 語幹으로 잡고 있지만, 이 가운데 정말로 ‘르’로 끝난 것은 C.에 屬하는 것들만이다 (形

容詞에는 이 類型에 드는 것이 없고, 若干의 動詞들만이 이 範疇에 屬한다. A. 에는 動詞 하나와 몇개의 形容詞가 들고, 그 밖의 거의 모든 用言은 B 類型의 것들이다.) A. B. 는 그 語幹의 末音節이 다같이 ‘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一定한 音韻規則에 따라 末音 ‘ㄹ’을 喪失하는 것이다.

$$r \longrightarrow \phi / ri \text{---} + C$$

따라서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될 때에만 그 r의 音聲實現을 보게 된다. 위의 公式의 右邊은 嚴格히 말하면 +C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y)C다. y의 제로化가 r→ϕ보다 先行하기 때문이다. 先行時代의 音韻變化에 緣由하는⁽⁴⁾ 이 異化作用의 公式에 대한 現代語에서의 例外로는 名詞 ‘겨를’ (遑) 하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對格의 再加形 ‘를’은 첫번째 ‘ㄹ’과 나머지 사이에 +가 있으니 條件이 다르다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例外는 ‘겨를’이라는 形態素가 依存形 아닌 自立形이라는데서 合理化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共通的인 ‘ㄹ’의 問題를 벗어나고 나면, A, B 사이에 남는 것은 오직 ‘으’의 差異뿐인데, A에서는 그 ‘으’가 固定的인데 對하여 B에서는 母音系 接尾辭 앞에서 그 脫落을 보는 것이다. 이에 筆者는 우리의 i와 y를 다시 A와 B의 ‘으’에 配當하는 것이니, 前者에 論했던 音韻規則이 接尾辭에서의 y를 爲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앞에 있는 形態素 境界에 依持하는 前倚的인 것이라면, 지금의 우리 規則은 後倚的인 것이요, 語幹內的 y를 爲한 것이 된다.

$$y \longrightarrow \emptyset / r \text{---} r + V$$

B에 屬하는 用言들이 母音系 接尾辭 앞에서의 rr實現에 類推되어 ‘올르다~올르고, 빨리다~빨르고’式으로 쓰이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

(4) 李崇寧, 「語幹雙形說의 提起」(서울大學校 論文集——人文·社會科學 6輯) 1957. pp. 83—84. 및 李崇寧, 「中世國語文法」1961, pp. 62—63 등을 參照.

렇게 變形된 用言들은 벌써 B의 範疇를 벗어나 定則적인 C에 合流한 것이 되고, 따라서 그 境遇의 言語에는 語幹의 y란 存在치 않게 된다. 그러나 A, B, C의 區別을 가지는 言語의 文法에 있어서도, y의 確認과 r의 異化作用의 發見은 非自動的 交替를 追放하기에 充分한 것이었으므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種類의 ‘르’ 變則用言도 남아 있지 않다.

異化作用에 依한 語幹末 ‘르’의 脫落의 條件差에 對해서 몇마디 덧붙여 두어야 하겠다. 異化作用의 境遇에는 /——+C면 充分하여 後行子音의 種類를 물을 것이 없었지만, 單純한 ‘르’의 脫落은 그 子音에 制約이 있다.

$$r \longrightarrow \emptyset / \text{——} + \left[\begin{array}{l} + \text{cons.} \\ + \text{anterior} \\ (+ \text{cont.}) \end{array} \right]$$

/이르-/ : 이 르 다 /말-/ : 말 다(따다)

이 르 고	말 고
이 르 니	마 니
이 르 며	말 며
이 르 시 고	마 시 고
이 르 지	말 지 (마지)
⋮	⋮

齒音 또는 齒莖音 앞에서만 r의 脫落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閉鎖音일 때에는 이 現象은 義務적인 것이 못되고 恣意的인데 그치고 만다.

흔히 ‘을는지→을른지’, ‘갈는지→갈른지’ 등의 例를 들어 ‘르’이 ‘른’ 앞에서 ‘ㄴ’을 同化시켜 ‘르’를 만든다고 하나 이는 正確한 觀察이 되지 못한다. ‘ㄴ’에 先行한 ‘르’에는 오직 脫落이 있을 뿐이다. 外見上 $r\ell \rightarrow r\ell$ 로 보이는 것은 실상 그 사이에 子音을 가지고 있을 때 그 子音

을 건너 뛰는順行同化인 것이다. 例를 들면 ‘끓는다→끓른다’나 ‘알는다→알른다’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이다. ‘갈는지’의 境遇에도 ‘ㄹ’과 ‘ㄴ’ 사이에는 現代正書法에 反映되지 않은 形態音素 ‘ㅎ’ (?)가 存在하기 때문에 ‘갈든지’로의 實現이 可能的한 것이다. 未來時制의 接尾辭 ‘을’은 ‘ㄹ’로 끝나 있는 것이 아니라 ‘ㄷ’이기에 ‘갈 것이다’를 ‘갈껏이다’로 소리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ㄹ’을 默音化시키는 齒音系列에 追加될 것에 ㄷ가 있다. 이른바 ‘ㄷ’ 받침 變則動詞의 語幹에서 ‘ㄷ’ (→ㄷ)과 ‘ㅎ’ (체로가 아닌 一種의 斷切音素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適當한 記號가 없으니까 아쉬운대르 fi 程度의 表記를 해 두겠다. ‘낫다~나으니까’와 ‘낱다~낱으니까’에서의 ‘으’의 音聲實現은 完全히 同一하다) 으로 實現되는 形態音素를 ㄷ로 表記하는 것인데, 接尾辭 形態素中에도 이 ㄷ를 頭音으로 가진 것들이 있어 그 앞에서 ‘ㄹ’이 規則적으로 체로化되는 것이 觀察된다. 用言의 語尾로 쓰이는 ‘습니다~ㅂ니다’와 ‘소~오’가 그런 것들이다.

語幹의 末音이 母音일 때에는 于先 ㄷ→fi가 일어나고 다음에 語幹母音과 ‘으’의 收約이 實現되어 結果적으로는 ‘ㅂ니다’만을 붙이는 結果를 낳는다. 子音語幹에 붙을 때에는 ㄷ→s가 이루어지고 다시 先行子音의 影響으로 硬音化한다. ‘ㄹ’末音語幹이 先行할 때에는 그 ‘ㄹ’이 먼저 이 앞에서 체로化하고 그 다음에 母音語幹과의 結合에서와 같은 過程을 밟는 것으로 理解된다. (그리하여 ‘불’→‘붙니다’) ‘소~오’의 境遇에도 같은 過程을 거쳐 ‘먹소’, ‘가오’, ‘부오’가 實現된다.

그런데 ‘먹소’ ‘먹습니다’와 짝을 이루는 ‘가오’, ‘잡니다’에는 ‘먹으오’ ‘먹읍니다’라는 다른 짝들이 發見된다. 그러니까 ‘가오’ ‘잡니다’ 따위는 音韻論的 曖昧性을 지니는 形態라 할 수 있다. ‘잡니다’의 ‘ㅂ’은 -zɨp-에 由來할 수도 있고 -yp-에 由來할 수도 있다. 같은 外形에 到達하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겪는 音韻論的 過程도 같을 수는 없

다. ‘ㄹ’이 -yp-의 結合될 때에는 먼저 r 아래서 y가 脫落되고 그 다음에 r이 떨어져서 ‘붙니다’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때에 r을 除去하는 것은 母音間의 三子音을 規制하는 規則이다. (例: 밍는다—밍는다.) 史的인 觀點에서 보면 /-zip-/의 異形態로서의 -p- (母音 뒤에서)의 基準으로 y系 語尾들에 對한 類推로 p 앞에 y를 붙여 ‘읍니다’ 形이 이루어진 것인데, ‘-으오’ 形은 ‘오’에 y를 붙인 것이 아니라 (母音에 先行한 y란 類別이 없다.)-‘소’ 그 自體에 y를 붙인 것이 다르다면 다른 點이다. z가 母音間에서 fi가 되는 것이니까, 子音語幹일 때는 ‘덕으오’와 같이 되고, 母音語幹일 때에는 ‘가소’를 거쳐 ‘가오’가 된다. ‘ㄹ’ 아래서는 먼저 y가 除去되고 다음에 z에 부각된 r이, 그리하여 最終적으로 母音間의 z의 fi로의 移行을 보아 ‘부오’와 같이 實現된다. ‘-으오’ 形의 基本構造에 ‘z’를 빼고 그대로 ‘-으오’라 하면 ‘ㄹ’ 未音 語幹과의 結合形態를 說明하지 못하는 體系上의 難點이 있다. ‘붙+으오’로 하면 ‘*붙오’ 밖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III

現代 國語에는 母音의 長短에 依해서 對立되는 形態素들이 存在한다. 個人이나 方言에 따라 어느 程度의 差異가 있기는 하나 大略 다음과 같은 것들이 認定될 수 있을 것이다.

아 : 밤(夜) ∞ $\overline{\text{밤}}$ (粟), 발(足) ∞ $\overline{\text{발}}$ (簾), 말(馬), ∞ $\overline{\text{말}}$ (言), 말다(捲) ∞ $\overline{\text{말}}$ 다(勿, 止)

에 : 배(舟) : 배(倍), 혀(日) ∞ $\overline{\text{해}}$ (害), 새(新) ∞ $\overline{\text{새}}$ (鳥), 피(打) ∞ $\overline{\text{피}}$ 다(割).

머 : 벌(罰) ∞ $\overline{\text{벌}}$ (蜂), 열(欠) ∞ $\overline{\text{열}}$ (魂),

성(城) : 성(姓), 병(瓶) ∽ 병(病), 경각(頃刻) ∽ 경각(警覺),

오 : 솔(松) ∽ 솔(刷毛), 올(今年) ∽ 올(絲條), 골(怒) ∽ 골(고랑), 돌
(도랑) ∽ 돌(石), 수(手) : 수(數)

우 : 굴(蠣) ∽ 굴(窟), 눈(眼) ∽ 눈(雪), 술(酒) ∽ 술(실 장식), 무기(無
期) ∽ 무기(武器), 농(장농) ∽ 농(弄)

이 : 치다(擊) ∽ 치다(除), 기생(寄生) ∽ 기생(妓生), 일(一) ∽ 일(事),
이(齒) ∽ 이(利) 김(金<姓>) ∽ 김(蒸氣)

으 : 근대(植物名) ∽ 근대(近代), 금기(今期) ∽ 금기(禁忌), (여기에는
固有語의 minimal pair 들을 찾기 어려운 듯한데, ‘꼴다’ <掃>, ‘들’
<野>에서의 長音의 存在는 確實하다. 反對로 ‘들다’ (入) ‘늘다’
(增)는 分明히 짧다.)

‘에’, ‘의’에 對에서는 ‘게’ (蟹), ‘회’ (膾) 같은 例가 存在하거니와,
後者에 있어서는 ‘외’ (櫃) ∽ ‘외’ (瓜), ‘회’ (蛔) ∽ ‘회’ (膾) (會) ‘되다’
(化) ∽ 되다(斗量)의 對立까지 發見된다.

‘의’의 경우에는 辭典들에 長音符號가 붙은 漢字들이 얼마간 보이지만
現實的으로 採擇할만한 것은 못된것 같다.

長音으로 된 形態에는 母音, r, n, m, ŋ로 끝나는 것이 大部分이며, 用
言語幹의 境遇에는 β, δ, z, h 등이 追加된다. (‘곰다’ <麗>, ‘몬다’ <聞>,
‘잇다’ <連>, ‘좋다’ <好>等.) 그러나 다음 例들은 같은 子音을 가졌으면
서도 短音으로 되어 있다. ‘춥다’ <寒>, ‘듣다’ <聞>, ‘붓다’ <注>, ‘놓다’
<置> 그러나 ‘속’ (內部, 內心) 셋(3), 넷(4), ‘작다’ (小) 같은 例, 또는
‘밟다’ (踏) ‘뺨다’ (澁) 같은 것들이 있으므로 形態素 末音에 依한 完全
한 制約을 期할 수는 없다. ‘없다’ (無) 같은 單語는 辭典에 長音 語幹
을 가진 것으로 記錄되어 있으나, 이 長音은 保守的인 一部 話者들에게
서만 들을 수 있다.

이들, 所謂 長母音들은 單純히 母音의 길이만을 길게 끌어 發音하는

것이 아니라, 相當한 緊張을 隨伴하며, 그 發音位置 特히 開口度에 變化를 가져온다. 假令 ‘일’ (一)과 ‘일’ (事)의 發音에 있어서나 ‘발’ (足)과 ‘말’ (簾)의 發音에 있어 이러한 事實은 잘 觀察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 이 事實에 발판을 두고 筆者는 長母音과 短母音을 各各 緊張母音(tense vowel)과 弛緩母音(lax vowel)으로 바꾸어 부르기로 한다. 이것은 術語의 代替에 그치는 것이 아니요, 韻律論的 資質로부터 固有資質로 轉換하는 것이 된다. 即 緊張性(tenseness)을 하나의 示差的 資質로 認定함에 따라 音長은 剩餘 資質(redundant feature)로 格下되는 것이다.

緊張資質의 觀察에 있어 注意할 事項이 몇가지 있다.

(1). 緊張母音은 한 單語(音韻論的 單語), 한 發音段落의 첫 音節에서만 그 音聲的 實現을 본다. 本來 이 資質을 가졌던 形態素라 할지라도 線條化의 過程에서 單語의 第二音節 以下에 오면 緊張母音의 實現을 보지 못한다.

눈(雪) → 함박눈, 싸락눈

굴(窟) → 땅굴, 암굴(岩窟)

놀다(遊) → 뛰놀다.

매다(縛) → 엮매다.

사람(人) → 한 사람, 두 사람

말(言語) → 우리말(國語), 상말(俗語)

⋮

筆者는 이 現象을 ‘緊張性 掃去의 規則(tenseness sweeping rule)이라 부르기로 한다. 왜냐하면 第二音節 以下の 緊張母音들은 비로 쓸리듯 그 緊張性을 喪失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語尾形態素들에는 緊張母音이 있어도 直接的인 音聲實現을 볼 機會가 없다.

(2) 다음은 用語 語幹에만 適用되는 規則인데 弛緩化 規則(laxing rule)이라 부를만한 存在다. 子音語尾 앞에서 緊張母音을 維持할 수 있는

韻幹들이라 할지라도 母音 韻尾와 連結되어서는 그 緊張性을 喪失하는 수 밖에 없다.

코다, 코고, 코지 → 코아, (코니) <煎>

꼬다, 꼬고, 꼬지 → 꼬아, (꼬니) <縑>

꾸다, 꾸고, 꾸지 → 꾸어, (꾸니) <借>

피다, 피고, 피지 → 피어, (피니) <誘>

알다, 알고, 알지 → 알아, (아니) <知>

불어다, 불고, 불지 → 불어, (부니) <吹>

낫다, 낫고, 낫지 → 나아, 나으니 <癒>

잇다, 잇고, 잇지 → 이어, 이으니 <連>

좋다, 좋고, 좋지 → 좋아, 좋으니 <好>

묻다, 묻고, 묻지 → 물어, 물으니 <問>

돕다, 돕고, 돕지 → 도와, 도우니 <助>

위의 表에 보이듯이 一定한 規則에 依해서 緊張母音의 弛緩化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緊張性의 確認은 오직 子音系語尾 앞에서만 可能한 것이다. 辭典類의 所謂 長音表記에 서로 差錯이 있는 것은 個人的인, 方言的인 差異에 말미암은 것 外에 위의 事實에 대한 把握이 未熟해서 생긴 例도 있는 것 같다. (假令 어떤 辭典에서는 ‘쏘다’ <射>를 短母音 語幹을 가진 것으로 적어 놓고 있는데, 筆者의 發音으로는 ‘쪼다, 쪼고, 쪼지 → 쪼아, (쪼니)’로 나온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現象은 體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假令 ‘곰’ (熊), ‘밭’ (塹), ‘눈’ (雪) 같은 單語들은 다음과 같이 恒常 그 緊張性을 維持한다.

곰이, 곰을, 곰으로, 곰도, 곰과

말이, 말을, 말로, 말도, 말과
 눈이, 눈을, 눈으로, 눈도, 눈과

弛緩化 規則에서는 얼마간의 例外가 目擊된다.

몰라(不知), 골라(擇), 굵어(太), 작아(小), 얇아(薄), 없어(無)

끝의 例는 勿論 ‘없다’의 ‘어’를 長音으로 發音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일이지니와, 要件대 語幹末이 純粹子音이거나, ‘고’의 複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制約條件이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點에서 다음의 對立은 매우 示唆的이다.

모른다 : 몰른다(不知)

고른다 : 골른다(擇)

흐른다 : 흘른다(流)

이르다 : 일르다(早)

3) 지금까지는 活用語尾와의 連結에서 語幹의 緊張性이 어떻게 變하는가를 보아 왔거니와, 이러한 語尾와의 關係없이 일어나는 語幹 自體의 形成條件에 따른 規則的인 變化가 發見된다.

a) 돌다→돌보다

감다→감돌다

b) 잘다→살리다

알다→알리다

c) 몰라∞모르다

골라∞고르다

무슨 理由에서건 語幹이 二音節 以上으로 擴張되었을 때에는 緊張性이 解消된다고 할 수 있으니, 筆者는 이것을 ‘語幹 調整의 規則’(Stem adjustment rule)이라고 命名한다. (例外 : ‘기들다’ 따위)

弛緩化 規則 따위로서는 除去될 수 없는 緊張性의 解消가 複合語幹들(a,b)에서 發見되지만, 이 現象은 語幹의 複合이나 派生이라는 形態論

的 現象에 그 理由가 있지 않음은 c의 例가 分明히 해 준다. 即, ‘모르다, 고르다’ 등은 그 基本 形態構造의 段階에 있어서는(勿論 單一 形態素들이다) 各各 ‘모르-’, ‘고르-’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形態素들이 二音節을 維持하는 限, 지금의 規則에 따라 그 緊張性을 音聲面에 까지 들어 낼 수 없는 것이요, 第二音節 母音의 脫落으로 單音節化할 때에 비로소 그 音節的 實現을 期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單音化하는 일이 없는 二音節 語幹(例: 머물다, 꾸짖다...等)이나 三音節 以上の 語幹(例: 기다리다, 누우치다...等)은 지금의 規則만으로도 緊張性의 世界에서 疎外당하는 것이 當然해진다.

體言에는 이 語幹調整의 規則도 適用되지 않는다. 이렇듯 體言은 예러 모르 緊張母音의 安定을 維持함으로써, 用言 語幹의 境遇와 좋은 對照를 이룬다.

사람, 몸보, 대통령, 눈보라, 만다툼, 흥놈, 장님, 염불(念佛),

‘얼음’ (氷)의 境遇에는 ‘얼음’이 優勢하여 用言의 體系에 影響받고 있음을 보나, 間或 ‘얼음’으로 發音하는 사람을 發見할 수 있다. (또한 ‘주름←줄’, ‘플음←폰’ 參照)

名詞(또는 副詞)가 用言 形成에 關與할 때에는 語幹의 規則에 順從하는 일이있어 보이나, 이는 오히려 例外的인 일에 屬한다.

A { 애를 쓴다. { 잘 한다.
 애타게 기다렸다. { 잘한다.

B { 일한다 : 일을 한다.
 해결한다 : 해결 (解決)
 사람답다 : 사람
 말한다 : 말 (語)

이 程度의 準備로 이제 우리는 第二章에서 다루었던 問題들을 다시 喚

起시킬 段階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거기서는 제로화를 示現하는 ‘으’를 中心으로 하여 이른바 ‘르’變則用言의 語幹 第二音節과 ‘으’系 語尾를 다루었었지만, 이제 다른 接尾辭들을 包含시키며 語幹中心으로 問題를 擴大시켜 보겠다.

우리가 y 로 적었던 ‘으’母音を 頭音으로 하는 接尾辭 ‘-은, -으니’ 앞에 純粹子音 以外の 것이 오면, 이들 接尾辭의 ‘으’가 제로化된다는 것이 우리의 主要 觀察內容이었거니와, 이 境遇의 母音系 語幹(르包含)들의 緊張 資質에는 아무런 變化도 오지 않는다. (子音系 語幹들에서는 이런 ‘으’와의 結合에서도 弛緩化 規則이 適用됨을 우리는 이 章의 앞의 部分에서 이미 論했다.)

타다(乘)→타니, 탄

이다(戴)→이니, 인

보다(見)→보니, 본

고다(煎)→고니, 곤

불다(吹)→부니, 분

알다(知)→아니, 한

이것은 우리가 ‘르’變則用言의 語幹 第二音節에 對해서 觀察한 것과 軌를 같이 한다.

反面 ‘아’와의 結合에서는 ‘으’系 語幹에서의 母音의 제로化가 일어나나 ‘르’變則用言에서와 같은 y→o/— r+{ə}의 現象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第二音節의 -ryr 만이 가지는 特權이라 할 것이다. (만들다→만들어, 거들다→거들어 等과 比較)

뜨--(浮) +어서→떠서

담그--(浸) +어서→담겨(아)서

트--(開) +어서→터서

뜨--(汲) +어서→퍼서

‘아’系 語幹에서도 비슷한 現象이 일어나는데, 外見上은 語幹과 語尾의 母音이 같은 ‘아’이어서 어느 쪽 ‘아’가 없어졌는지 判別키 困難해 보이나, 體系的인 一貫性으로 보아 앞의 ‘아’가 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合理的이다.

가-(往) + 아서 → 가서

파-(掘) + 아서 → 파서

타-(乘) + 아서 → 타서

차-(馱) + 아서 → 차서

‘이’系 母音들은 完全히 脫落하는 일은 없고, 같은 ‘이’라도 緊張・弛緩의 差異에 따라 그대로 維持되는 것과 j로의 弱화를 보이는 것이 생긴다.

이-(戴) + 어서 → 여서

치-(打) + 어서 → 처서

지-(負) + 어서 → 저서

치-(除) + 어서 → 치어서

기-(備) + 어서 → 기어서

비-(空) + 어서 → 비어서

‘이’에서 보는 이러한 差異는 示唆하는 바 크다. ‘아/어’ 앞이라고 하여 母音語幹들이 無條件 弱化・脫落되는 것이 아니라, 弛緩母音에서만 일어나는 現象이라는 것이 첫째니, ‘으, 아’系 語幹에서 제로화가 義務的인 듯한 印象을 받았지만, 그것도 마침 그런 語幹의 母音에 緊張系의 것이 없다는 偶然한 事情에 말미암는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 둘째로 제로화라는 것도 ‘으, 아’特有的 弱化機制가 一般的인 scheme 이 아니라는 事實도 發見할 수 있다. ‘으, 아’의 ‘아/어’ 앞에서의 弱화의 길이 제로화 밖에 없다는 特殊한 事情만 아니었다면 다른 音으로의 轉換도 無妨했으리라는 말이다. 그 例를 ‘이’가 i→j로 보여 준다. 이 弱

化들, 卽 재로化와 j化의 共通點을 ‘非母音化’라는데 찾아 ‘弛緩母音 非母音化의 規則’ (lax vowel devocalization rule)이라고 부르려 하거니와 여기에는 第二章에서 觀察했던 y의 脫落規則들까지를 包含시킬 것이다.

筆者의 處理에서는 재로化 또는 그에 準할 變化를 가지지 않는 語尾 形態素의 頭母音들은 便宜上 緊張母音으로 推定된다. 따라서 ‘아/어’에 潛在되었을 緊張성이 ‘非母音化’의 實現 過程에서 消滅된다고 보게 된다. 이것은 非母音化될 語幹母音의 弛緩資質이 ‘아/어’ 쪽으로 輸送되는 것이라고 풀이해 둔다. 그러나 이것은 非母音化 規則에 附帶事實로 나타나는 것으로 처서 새規則으로 定立시키지는 않는다.

母音으로 끝난 語幹이라도 그 母音이 圓唇母音일 때에는 非母音化의 規則에서 除外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고--(煎) → 고아서

꼬--(絞) → 꼬아서

꾸--(借) → 꾸어서

주--(與) → 주어서

보--(見) → 보아서

다투--(鬪) → 다투어

但 該當音節 自體가 完全히 圓唇母音 自體로만 되어 있을 때에는 亦是 規則에 따를 義務가 있다.

오--(來) → 와 (*오아)

싸우--(爭) → 싸워 (*싸우어)

매우--(埋) → 매워 (*매우어)

[比較: 메꾸--(埋) → 메꾸어]

叙上의 많은 規則들이 適用을 보고 난 다음에 登場하는 것이 ‘收約의 規則’ (contraction rule)이다. 用言의 境遇부터 보면 다음과 같은 例들에

서 緊張化가 結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母音 語尾와의 結合으로 이미 弛緩化 規則을 適用하고 난 다음이니까 語幹母音이 本來 緊張母音이었던가 弛緩母音이었던가에는 左右되지 않는다.

놓- (放) : 놓아서 → $\overline{\text{놔}}$ 서, 놓으니 → $\overline{\text{노}}$ 니

두- (置) : 두어서 → $\overline{\text{둬}}$ 서, (두니)

보- (見) : 보아서 → $\overline{\text{봐}}$ 서, (보니)

잇- (連) : 이어서 → $\overline{\text{여}}$ 서, 이으니 → $\overline{\text{이}}$ 니

줏- (拾) : 주어서 → $\overline{\text{줘}}$ 서, (주니)

교- (煎) : 교아서 → $\overline{\text{괘}}$ 서, (교니)

굽- (燒) : 구워서 → $\overline{\text{꿔}}$ 서, 구우니 → $\overline{\text{구}}$ 니

돕- (助) : 도와서 → * $\overline{\text{뉘}}$ 서, 도우니 → * $\overline{\text{도우}}$ 니

굽- (麗) : 고투서 → * $\overline{\text{괘}}$ 서, 고투니 → * $\overline{\text{고투}}$ 니

좋- (好) : 좋아서 → * $\overline{\text{좨}}$ 서, 좋으니 → * $\overline{\text{조}}$ 니

‘도우니 → * $\overline{\text{도우}}$ 니, 고투니 → * $\overline{\text{고투}}$ 니’의 境遇는 中間의 ‘우’가 오직 ‘우’하고만 어울려 ‘우’를 이룰 뿐, 다른 母音이 先行했을 때에는 그런 收約을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問題될 것이 없다⁽⁵⁾. ‘밧다 → $\overline{\text{미}}$ 우니, 맷다 → $\overline{\text{메}}$ 우니, $\overline{\text{덱}}$ 다 → $\overline{\text{더}}$ 우니’ 등에 있어서도 事情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overline{\text{뉘}}$ 서, * $\overline{\text{괘}}$ 서, * $\overline{\text{좨}}$ 서’의 셋은 說明키 어려운 例外로 남는다. 셋다 ‘오’ 母音을 가진 것이 特徵이라면 特徵이겠는데 그것만으로 例外가 될 條件을 滿足시키지는 못한다. 近來 흔히 듣는 ‘도움다, 도움는...’ 式의 發音이 이런 例外性を 治癒하기 爲해서 登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語幹을 ‘도움-’으로 잡으면, ‘* $\overline{\text{도우}}$ 와 → $\overline{\text{도와}}$, * $\overline{\text{도우우}}$ 니 → $\overline{\text{도우}}$ 니’를 얻을 수 있겠기 때문이다.

體言에 있어서 緊張化를 必然的으로 帶同하는 收約은 語幹 內部에서

(5) 名詞의 境遇에는 「싸움 → $\overline{\text{썩}}$ 」이 可能하다. (싸우다 → * $\overline{\text{싸}}$ 다). 이 事實은 細部에 있어 體言과 用言은 그 收約의 機制를 달리함을 示唆한다.

만 일어난다.

가을→갈,

고을→골

노을→놀,

싸움→쌈

해엄→햄,

아이→애

사이 (間)→새,

마음→말

고양이→괩이

도야지→띠지

수염→선

시험 (試驗)→셴

이들 緊張化 同伴의 收約의 두 境遇(體言 語幹內部와 用言)는 그 出現이 恣意的(optional)인 것이어서 適用되어도 좋고 適用되지 않아도 無妨하게 되어 있다.

第二章에서 우리는 ‘으’ (2) 그러니까 i의 母音下에서의 消滅을 收約의 한 形態로 볼 것인가 어떤가에 對해서 決定을 留保했었다. 收約으로 보기에 緊張化의 一般的인 缺如가 한 難點이 되는 것은 勿論이려니와, 收約 規則이 義務的 適用을 모르는 것인데, ‘으’의 消滅은 必須的 節次라는데에 더 큰 乖離가 있다. 그렇다크 그대로 ‘으’ (2)도 母音下에서는 ‘非母音化’한다고 하게 되면 모처럼 ‘으’ (1)과 ‘으’ (2)를 區別했던 우리의 努力이 徒勞에 그치고 만다. 더욱 거기에는 分명한 條件의 差異, 卽 先行 ‘코’의 關與 與否가 있기에 混沌의 原點으로 復歸할 수는 없다. 또한 ‘나+은’의 境遇 弛緩母音과의 接觸에서 緊張母音이 脫落한다는 것도 論理的이 아니다.

이러한 矛盾의 克服을 爲하여 우리는 規則 適用 順序의 策定에 妙를 期한다. ‘非母音化’ 規則을 適用하고 난 다음에 곧 ‘掃去’의 規則을 適用하면 對格이나 主題格의 ‘으’는 그 緊張性을 잃고 만다. 이때에 새로운 規則 ‘高母音 消去’의 規則(high vowel elision rule)을 適用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現象이 音聲段落의 끝 音節에서 일어날 때에는 代償으로 한 音節을 늘려 준다는 附則을 붙일 수 있으나, 여기서 ‘나는, 나쁜’의

登場을 본다⁽⁶⁾,

#난 모른다# : #나는#모른다#

#날 모르느냐# : #나를#모르느냐#

敘述形의 ‘이’의 省略에서도 비슷한 現象이 일어난다. 잘 알려진 事實이지만 母音 語幹 밑에서 이 ‘이’는 곧잘 살아진다.

{ 소다. 나다. 학교다
{ 딸이다. 사람이다. 닭이다.

그러나 ‘이’가 #앞의 音節에 올 때에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다.

{ #반도.(半島)인#우리나라#
{ #우리나라가#반돈 줄도#모른다#

主格의 ‘가’의 出現도 비슷한 條件下에서 이루어진다. 單音節 格形態들은#에 直面하여 音節 代償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서는 所用에 닿지 않으니까 ‘가’라는 形態의 支援을 받는 다 할 것이다.

高母音 除去의 法則은 可變的 子音들(β, δ, z, h)의 特殊化가 일어나기 以前의 段階에 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났다→나으니’ 등의 ‘으’까지 侵犯될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을, 마음’ 등의 形態素들은 두 母音 사이에 某種의 子音(例컨대 g)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解釋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調整은 收約으로 緊張化가 結果되는 것이 첫째 音節에 限 한다는 制約을 붙여야 하게 만든다.

IV

앞의 두장에 걸쳐 張皇하게 說明했던 規則들을 整理하여 그 適用 順序를 確定시키고, 그에 따라 實際의 發話가 어떻게 處理되는가를 보이기로 한다. 이제부터는 弛緩母音을 普通 活字로 적고, 緊張母音은 bold

(6) 여기서는 #가 breath group의 終지를 表示한다.

face 로 表記하기로 한다.

弛緩母音 : a, e, i, o, u...

緊張母音 : **a, e, i, o, u**...

‘으’ 만은 活字關係로 i 로의 表記를 拋棄하고 y : **y** 로 하는 便法을 쓴다. 규칙의 番號는 그 適用 順序를 指示한다. 但, 現在의 問題에 直接 關聯되지 않은 音韻規則들을 順序에 끼어 넣는 것은 삼간다.

규칙 1 : 弛緩母音 非母音化의 規則 (lax vowel devocalization rule)

규칙 2 : 語幹 調整의 規則 (stem adjustment rule)

규칙 3 : 弛緩化 規則 (laxing rule)

규칙 4 : 緊張性 掃去의 規則 (laxness sweeping rule)

규칙 5 : 高母音 除去의 規則 (high vowel elision rule)

규칙 6 : 收約의 規則 또는 緊張化規則 (contraction rule or tensing rule)

변 화 표

규칙	변 화 표					
형태	1	2	3	4	5	6
iry+ese	iryrese	→	→	iryrese	→	→ 이르러서
ory+ase	orrase	→	→	orrase	→	→ 올라서
kory+ase	korrase	→	→	korr ase	→	→ 꼴 라서
pur+ese	purese	→	purese	purese	→	→ 불어서 (吹)
ko+ase	koase	→	koase	koase	→	kwase 콰 서
iz+yni	izyni	→	izyni	(iyni)	→	i ni 이니
i+yni	ini	→	→	ini	→	→ 이니
tor-po+a	torpoa	torpoa	→	torpoa	→	torpwa 돌봐
kam-tor+yni	kamtoryni	kamtomi	→	kamtoni	→	kamtoni 감도니
pur+yn pun		→	→	→	→	→ 분

cuβ+y _n	cuβyn	→	→	→	→	(cuun) cun	훈
na+y _n	na _y n	→	→	nayn	nan	→	난
s'aum+y _n		s'aumyn	→	→	s'amyn	→	ჰუმ
ca+y _m +i	ca _y mi	→	→	caymi	cam	→	잠이
hampak+nun	hampaknun	→	→	hampaknun	→	→	함박눈
t'y+e	t'e	→	→	→	→	→	떠
ka+zyp (nita)	kazyp	→	→	→	→	(kayp) kap	잡니다.

(끝의 例는 규칙 6에 依하면 當然히 '잡니다'가 될 形態다. 이것은 ka+y_pnita에 由來하는 '잡'에 이끌린 結果라 할 수 있다.)

위에서 整理한 여섯 가지 規則은 本來 '르' 變則用言의 音韻論的 克服을 爲해서 '으'에 두 種類가 있다고 前提한데서 出發한 우리의 論理를 普遍的 體系 위에 세우기 위한 作業의 結果였다. 어찌면 이는 特異한 個別 現象을 局部的으로 다루지 않고 全體 體系 위에서 解決하려는 筆者의 執念의 所産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筆者는 몇몇 規則에 얼마간의 例外가 發見되었던 것을 잊지 않는다. 이는 이 規則들이 더 精密化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할지 모른다. 또한 規則의 數効가 꼭 여섯개 있어야 한다고 固執하지도 않는다. 실상 규칙 2, 3, 4는 하나의 큰 規則으로 묶을 수 있는 存在다. 基本的으로 [+tense]→[-tense]에 條件들만이 다른 것이니까 규칙 3의 이름 laxing rule로 充分히 包括할 수 있는 性質의 것들이다. (규칙 2, 3이 [-N]인 反面 4가 普遍的 規則이라는 差異는 있다.)

끝으로 지금까지 觀察해 온 現代國語의 事實들이 先行時期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을 呈示하고 있던가를 一瞥하자.

첫째로 우리의 규칙 1에 해당되는 事實에서 聲調와의 相關關係를 본다. 우리가 緊張母音으로 다른 對格이나 主題格의 '으/으'는 固定的으로 去

聲을 보이는데 反하여 弛緩母音으로 다른 ‘으’들은 앞에 온 語幹母音의 聲調에 支配되어 去聲과 平聲 사이를 넘나드는 것, 卽 筆者가 다른 拙稿에서 알파聲調라고 불렀던 特異한 聲調의 所有主들이다.⁽⁷⁾ ‘ㄴ’ 뒤에서 이런 種類의 母音이 脫落되는 條件도 現代語에서와 同一하다.

特記할 것이 있다면, 尊敬의 補助語幹 ‘으시’의 ‘으’가 豫想밖에 固定音을 보인다는 點이겠다. 이 ‘으’의 聲調는 틀림없이 α 인데, 다른 境遇하고 差異가 있다면 오직 形態素 ‘으시’의 두 音節이 다 α 로 되어 있는 事實뿐이다. $\alpha\alpha$ 의 連續이 l에 後行할 경우에도 끝의 α 를 H로 바꾸어 놓는 規則을 設定한 일이 있는⁽⁸⁾ 筆者는 여기 힘입어 그런 連續體의 penultimate가 ‘으’의 動搖에 抵抗하는 자리가 된다고 하고 싶다. 그리하여 ‘아[˙]르[˙]시[˙]리[˙]라’ (現代語는 ‘아[˙]시[˙]리[˙]라’)아[˙]르[˙]시[˙]니...가 存在했던 것이다. 이것이 當時의 規則이라면 確實히 까다로운 附則이었음에 틀림없고, 바로 이 點이 言衆의 言語體系에서 그 加外의 負擔을 덜기 爲해서 이런 種類의 것을 一般的인 ‘으/으’에 合流하게 한 理由가 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 種類의 ‘으/으’에 對해서 또하나 反省할 것은 造格 ‘으로’의 聲調다. 筆者가 檢討해 온 例들의 疎漏 탓인지 이 形態素는 平聲 體言에 連結되어서도 ‘으’가 去聲으로 나타나기에 (例: 바[˙]트[˙]로, 맞[˙]그[˙]로, 지[˙]크[˙]로, 서[˙]그[˙]로 等) ‘으로’의 ‘으’는 恒常 固定的인 去聲 卽 h로 다루어 왔던 것인데⁽⁹⁾, 이 ‘으로’가 ‘ㄴ’ 終聲 體言에 連結될 때 ‘으’를 消失한다는 事實에 着眼할 때, 아무래도 이 ‘으’가 α 聲調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해 된다. 위에 든 平聲의 名詞들이 音聲上으로는 平聲으로 實現되지만, 本來는 α 를 가졌던 것으로 形態素 境界에 接한 첫 音節

(7) 拙稿, 「알파聲調와 子音附聲調에 對한 一考察」(金亨奎博士頌壽紀念論叢)1971. pp. 79—92參照.

(8) 上揭 拙稿 參照.

(9) 拙著, 「國語音韻體系의 研究」1971. p. 149參照.

에서는 L(表面에서의 平聲)로 나타난다⁽¹⁰⁾는 α 의 規則(筆者 個人의 主張이었지만)에 따라 平聲이 되었을 뿐이라고 解釋케 된다. 따라서 α 連續의 最終項은 恒常 去聲化한다는 規則 때문에 ‘으로’의 ‘으’는 그런 α 聲調의 名詞 밑에서도 去聲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고 說明한다. 果然 子音을 末音으로 하는 名詞 語幹에 얹히는 聲調가 오직 α 와 h 뿐인지, 또는 眞正한 l 聲調가 있어 α 의 公式에 따라 lah→llh로 나타날 ‘ah으로’의 例를 아직 筆者가 찾지 못한 것인지는 確言하기 힘들다.

‘니르-’ 對 ‘이르-’ 式의 平去의 對立이 ‘으’의 脫落 與否를 가리는 基準이 된다는 것은 일찍 李基文 教授에 依해서 指摘된 事實이었다⁽¹¹⁾. 平平의 ‘아스, 여스, 마르, 나모’ 등이 ‘이르-’의 範疇에 드는 것도 이 基準에 비추어 보면 尙當한 일이었다. 그러나 ‘구무’ (孔) ‘모르-’ (不知)도 分明히 그들과 같은 變化를 보이는데도 여기서는 平聲 아닌 去聲이 보이는 것을 說明하기는 어렵다⁽¹²⁾. 이들 語詞에 있어서의 第二音節의 去聲은 ‘으시’의 境遇에서와 같은 알파였던 것이 아닌가 싶으니, 두 音節 다 α 였기 때문에 第二音節은 恒常 去聲으로 나타나는 反面 第一音節은 平聲이 된다 하겠다. 이 論理는 이미 우리가 ‘으로’에 대해서도 試用했던 바로 그대로다. 그러면 ‘아스, 여스’의 第二音節의 聲調도 α 였는가 하는 問題가 當然히 提起된다. 論理的으로는 그런 說明이 可能하니, 첫 音節이 l 둘째 音節이 α 이기 때문에 α 는 表面上으론 언제나 L이 될 수 밖에 없다는 式의 說明이다. 따라서 α 의 境遇에만 ‘으’의 脫落을 본다는 公式의 單純化까지 期할 수도 있어 매우 有利하나, 이 問題에 대한 最終의 斷定은 아직 이르다. L로 實現되는 것들에 얼마만큼의 α 가 있는지의 探索을 하고 나서 決定할 일이다.

(10) 前掲 拙稿 參照.

(11) 李基文, 「中世國語의 特殊語幹 交替에 대하여」(震檀學報) 23호, 1962, p. 130.

(12) 上掲論文, 同處 脚註(15)를 參照.

‘모랴’의 存在는 或 우리의 규칙 2에 比例하는 現象에 依하였을 可能性도 있다. ‘몰라’의 첫 音節은 上聲이다. 또한 이 ‘몰라’와 ‘아라’의 對比는 우리의 규칙 3에 該當한다. 語幹과 語尾 사이의 r과 rr의 差異가 現代語에 있어서나 中世語에 있어서나 이 現象의 成立 與否를 가름한다. (알라 : 아라)

以上 斷片的으로 中世國語의 聲調體系와 筆者가 現代國語에 대해서 그린 緊張性의 體系와의 關聯性을 살펴 보았다. 勿論 兩者 사이에 相當한 差異點도 存在하는 것도 事實이나,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은 本稿의 基本目標에서 너무 벗어난다. 다만 한가지 우리가 앞으로의 研究에서 念頭에 둘것에, 現代國語의 緊張性 體系가(그건 音長體系라 해도 좋다) 聲調體系 그 自體로부터의 發達인가 아니면 그 母體가 이미 中世國語에도 聲調體系와 어울려 存在했는가를 究明하는 重要한 課業이 있음을 끝에 붙여 둔다.